

미국종합처리장 고질적 적자 '통합'으로 극복한다

나주 4개 조합 통합 RPC 출범...광주도 신축RPC 11월 준공 예정 적자 줄이려 전국적 통합 움직임...시설 현대화 사업도 잇따라 추진 농협RPC, 쌀값 상승에 판매량 1만1000t 감소에도 매출 133억 ↑

쌀 소비 감소로 인한 미국종합처리장(RPC)의 고질적인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농협들이 통합RPC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26일 농협 광주지역본부와 광주시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 따르면 광주 14개 농협이 공동 출자 방식으로 조성하고 있는 광주 통합RPC가 오는 10월 중순께 준공될 예정이다.

RPC 신축은 기존 통합RPC가 있던 광주시 남구 대촌동에 에너지벨리가 조성되면서 추진됐다. 기존 통합RPC는 광주시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 지난 2007년 설립되면서 이듬해 운영을 시작했다. 대표이사외 각 14개 농협 조합장이 맡는 이사·감사 등이 임원진을 이룬다. 14개 농협이 동일한

자본을 맡으며 총 35억원을 출자했다. 주관농협은 평동농협이 맡고, 본량농협은 자금관리를 담당한다. 지난 2010년 건조저장시설을 신축한 뒤 2013년 가공시설 현대화, 2017년 건조저장시설 신축 등을 거쳤다.

RPC 신축 사업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추진됐지만 건립 비용 부담 문제로 난항을 겪어왔다.

신축 RPC 건물은 광산구 동림동 270번지 1만 5389㎡(4663평) 부지에 8858㎡(2684평) 규모로 조성된다.

토지 매입비 5억6000만원과 건축 및 기계공사 비용 97억2800만원을 포함 총 102억88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새로 마련되는 통합RPC에는 시간당 5t(전환경 쌀 1.5t) 규모 처리가 가능한 가공시설과 건조저장 시설로 구성된다.

통합RPC에는 총 7000t의 미국곡을 저장할 수 있다. 저장고(사일로)는 기존 500t씩 수용하는 4기를 포함해 이번엔 8기가 추가된다. 200평(660㎡) 규모 평창고(平倉庫) 1개동과 30t 규모 건조기가 신규 2기를 포함해 총 5기 운영된다.

광주시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관계자는 "다음 달 본격적인 쌀 수매 시작을 감안해 10월 중순까지 공사를 마치고, 11월 초순 준공식을 열 예정"이라며 "광주 대표 쌀 브랜드인 '빛찬들 햇쌀' 품질을 강화하고 지역 쌀 농가의 이익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에는 나주지역 4개 농협이 미국종합처리장(RPC)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나주시 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 운영을 시작했다.

남평·마한·동강·다시농협 등 나주 4개 농협은 지난해 11월 '나주시 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 창립 총회'를 열고 업무협약을 맺은 뒤 올해 5월 법인 설립

립등기를 마쳤다.

나주 통합RPC 건립은 오는 2023년까지 국비 74억원·지방비 37억원·농협 자부담 74억원 등 185억8800만원을 들여 추진된다.

나주시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은 지난달 '2022년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 대상에 선정돼 가공시설 현대화와 건조저장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동강농협 RPC 부지에 추진되는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은 내년 3월 착공한 뒤 2023년 마무리 될 예정이다.

노후화된 기존 공장을 폐쇄한 뒤 새로 마련되는 가공시설은 시간당 현미 6t, 백미 5t을 처리한다. 남평농협 시설(4000t)을 포함해 총 1만2000t의 저장능력을 갖추도록 했다.

임병의 통합법인 대표이사는 "통합RPC 출범으로 유통 환경과 소비자의 기호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고, 쌀 산업 경쟁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PC 통합 움직임은 광주·전남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시설 현대화 사업도 잇따라 시행되고 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에 총 22개의 RPC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나주와 해남, 장성, 보성, 강진, 담양, 장흥(천관), 고흥(홍양) 등에서 시설 현대화, 집진시설 개보수 등이 추진되고 있다.

올해 추진되는 사업 규모만 232억5000만원에 달한다.

광주·전남지역 농협 RPC들의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판매량은 15만3000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만4000t) 보다 6.7%(-1만1000t) 감소했다.

하지만 쌀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매출액은 2531억원에서 2664억원으로 5.3%(133억원)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지역 농협 RPC들은 매출이 62억원 가량 늘었으나 총 28억원 당기손실을 내며 2년 연속 적자영업을 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보성 햅쌀 맛보세요 26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이 지하 1층 곡물 매장서 올해 보성에서 첫 수확한 햅쌀을 선보이고 있다. 햅가족이나 1인 가구 수요에 맞춰 10kg(3만 3000원), 4kg 포장으로 선보이고 있다. <롯데쇼핑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 우수공공기관 인증

근로감독 면제 등 혜택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 세 번째 '2021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2021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은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이 주관했다.

이 제도는 인적자원개발 및 인적자원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공공기관을 심사해 정부가 인증을 부여한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2013년 첫 인증을 받은 뒤 올해 세 번째 인증을 취득했다.

앞으로 3년 동안 인증기호(Best-HRD)를 사용하며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 혜택을 받게 된다.

농어촌공사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학습 등 에듀테크(Edu-tech)를 활성화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또 신입사원 교육 및 체계적인 현장 실무과정을 운영하고 고졸 채용·지역사회 인재 채용 등 사회형평적 채용 노력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인식 사장은 "앞으로도 농어촌의 가치창출에 기여하는 창의적 인재를 지속 육성하겠다"며 "우리 농어촌의 발전과 농어업의 경쟁력 향상에 앞장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지난 24일 기준 광주 한 대형마트에서는 대파 1봉(1kg)이 2680원에 팔렸다.

추석 끝나고 대파 값 오름세 전통시장 2주 전보다 18% ↑

추석 연휴가 끝나고 대파 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농정 당국은 기상여건이 좋아지면서 공급량 증가로 가격 약보합세를 전망했다.

2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광주 양동시장에서 소매판매되는 대파 1kg 가격은 2000원으로, 2주 전(10일) 보다 17.6%(300원) 올랐다.

광주 한 대형마트에서 팔리는 대파 1kg 가격도 3090원에서 3490원으로, 12.9%(400원) 상승했다. 최근 들어 대파 값이 오름 추세지만,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전통시장 3500원·대형마트 5870원)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aT 측은 "향후 기상 호조에 따라 생육이 활발하고 작업량이 증가해 공급량이 늘며 가격 약보합세를 전망한다"고 말했다.

/글·사진=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 광주본부, 취약계층 의료지원 성금 전달

10년간 '사랑의 1004 운동' 627명에 5억700만원 상당

광주지역 농협 임직원들이 성금을 모아 취약계층 의료지원에 나섰다.

농협 광주지역본부는 최근 임직원들에서 '사랑의 1004 운동' 성금 전달식을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농협 임직원들이 모은 성금 1000만원은 지역 5가구를 위한 수술·치료비에 쓰인다.

'사랑의 10004 운동'은 광주지역 농협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으로 진행되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다.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627명에게 '사랑의 10004 운동'으로 모은 총 5억700만원 상당이 수술·치료비로 전달됐다.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매달 1004만원 성금을 모으자는 뜻을 지녔다. 이 기금은 광주지역 난치성 질환자의 자활지원 등에 쓰였다.

올해 1월에는 '사랑의 1004 운동'의 하나로 인사를 맞이하는 기간 동안 주고 받은 축하화분 경매를 열어 성금을 진행했다.

강형구 광주본부장은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며 함께한 광주 관내 농협 임직원들의 마음을 전해 줄 것 같게 생각한다"며 "어려울 수록 이웃에게 더 깊고 따뜻한 사랑이 전해지도록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오피스텔 신축부지

타 용도 변경 가능, 회사 사정상 급매

- ▶ **대인동** 롯데백화점 옆
대지 515㎡(구 156형)
지하 1층, 지상 9층
46㎡(구 14형), 64호실
매매 - 18억
- ▶ **신안동** 엄마요양병원 옆
대지 582㎡(구 176형)
지하 1층, 지상 10층
49㎡(구 15형), 72호실
매매 - 21억

중개환영. 010-3605-5000

남구 덕남동 임야

- ▶ 661㎡(구. 200형), 지분 매매
- ▶ 장·단기 최고 투자처, 개발 호재 다
-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 매매 - 6천만원, 중개환영 010-6837-4700